

● 훗카이도 지방환경사무소 (北海道地方環境事務所)

〒 060-0001 札幌市中央区北1条西10丁目1番地 ユーネットビル9F
TEL.011-251-8703 FAX.011-219-7072

다이세츠잔국립공원

(大雪山国立公園)

Daisetsuzan National Park

일본의 국립공원 5
다이세츠잔국립공원
(大雪山国立公園)

국립공원에 피는 꽃

산용담

Gentiana algida var. *igarashi*



그림 니하시 아이지로우 (二橋愛次郎)

다이세츠잔 (大雪山)의 고산대에만
분포한다. 높이 10cm 정도의 소형 용
담이지만, 꽃은 크고 길이 5 cm 정도
이다. 크림색의 땅에 자색의 줄이 들
어가, 기품있는 꽃이다. 혼슈 (本州)
의 고산에 있는 산용담의 변종.

홋카이도 (北海道)의 중앙부에 우뚝 솟아 있는 큰 지붕



● 카미카와 (上川) 자연보호관사무소 (上川自然保護官事務所)

〒 078-1741 北海道上川郡上川町中央町 98-4
TEL : 01658-2-2574 FAX : 01658-2-2681

● ो이가시가와 (東川) 자연보호관사무소 (東川自然保護官事務所)

〒 071-1423 北海道上川郡東川町東町 1-13-15
TEL : 0166-82-2527 FAX : 0166-82-5086

● 카미시호로 (上士幌) 자연보호관사무소 (上士幌自然保護官事務所)

〒 080-1408 北海道河東郡上士幌町字上士幌東 3 線 235-33
TEL : 01564-2-3337 FAX : 01564-2-2933

● 소우운쿄우 (層雲峠) 탐방객안내센터 (層雲峠ビジャーセンター)

〒 078-1701 北海道上川郡上川町層雲峠
TEL : 01658-9-4400
<http://sounkyovc.town.kamikawa.hokkaido.jp/>

● 아사히다케 (旭岳) 탐방객안내센터 (旭岳ビジャーセンター)

〒 071-0372 北海道上川郡東川町旭岳温泉
TEL: 0166-97-2153
<http://www.welcome-higashikawa.jp/vc/index.htm>

카무이민타라—신들이 노는 정원

아이누사람들은 다이세츠잔(大雪山)을 「카무이민타라」라고 불렀다.
꽃들로 가득한 광대한 고산대만큼 이 말이 잘 어울리는 곳은 없을 것이다.

다이세츠잔은 홋카이도(北海道)에서 가장 높은 산군이다.
산 정상에 서면, 광대한 고산대를 볼 수 있다. 산기슭에는 대규모의 수해(나무바다)가
펼쳐져 있고, 깊은 협곡이나 숲에 둘러싸인 호수와 습지도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산악공원의 하나이다.



고시키가하라 (五色ヶ原)에서 바라본 토무라우시산

다이세츠잔(大雪山)

일본의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넓고, 면적 약 22만 6천ha, 남북이 약 60km, 동서의 폭은 최대 50km에 걸쳐져 있는 지역이다. 훗카이도(北海道)를 대표하는 대규모 하천 이시카리강(石狩川)과 토카치강(十勝川)의 원류지대로 전역에 웅대한 산악경관이 전개된다. 공원 북부는 훗카이도의 최고봉 아사히산(旭岳; 2,291m)을 주봉으로 하는 산지이다. 가장 이용자가 많은 지역이며, 아사히카와시(旭川市)에서의 교통 편도 좋다. 그 남쪽에는 광대한 대지가 펼쳐져 있으며, 토무라우시산(2,141m)을 지나 서남부로는 토카치(十勝)연봉이 이어진다. 주봉인 토카치산(十勝岳; 2,077m)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이다. 공원 동남부는 숲에 둘러싸인 시카리베츠호(然別湖)를 중심으로, 누카비라호(糠平湖) 등을 포함한 지역이다. 공원 구역의 중앙부에는 이시카리(石狩)연봉이 있다. 공원 전역의 산기슭은 깊은 삼림으로 덮여 있으며, 각처에서 온천이 용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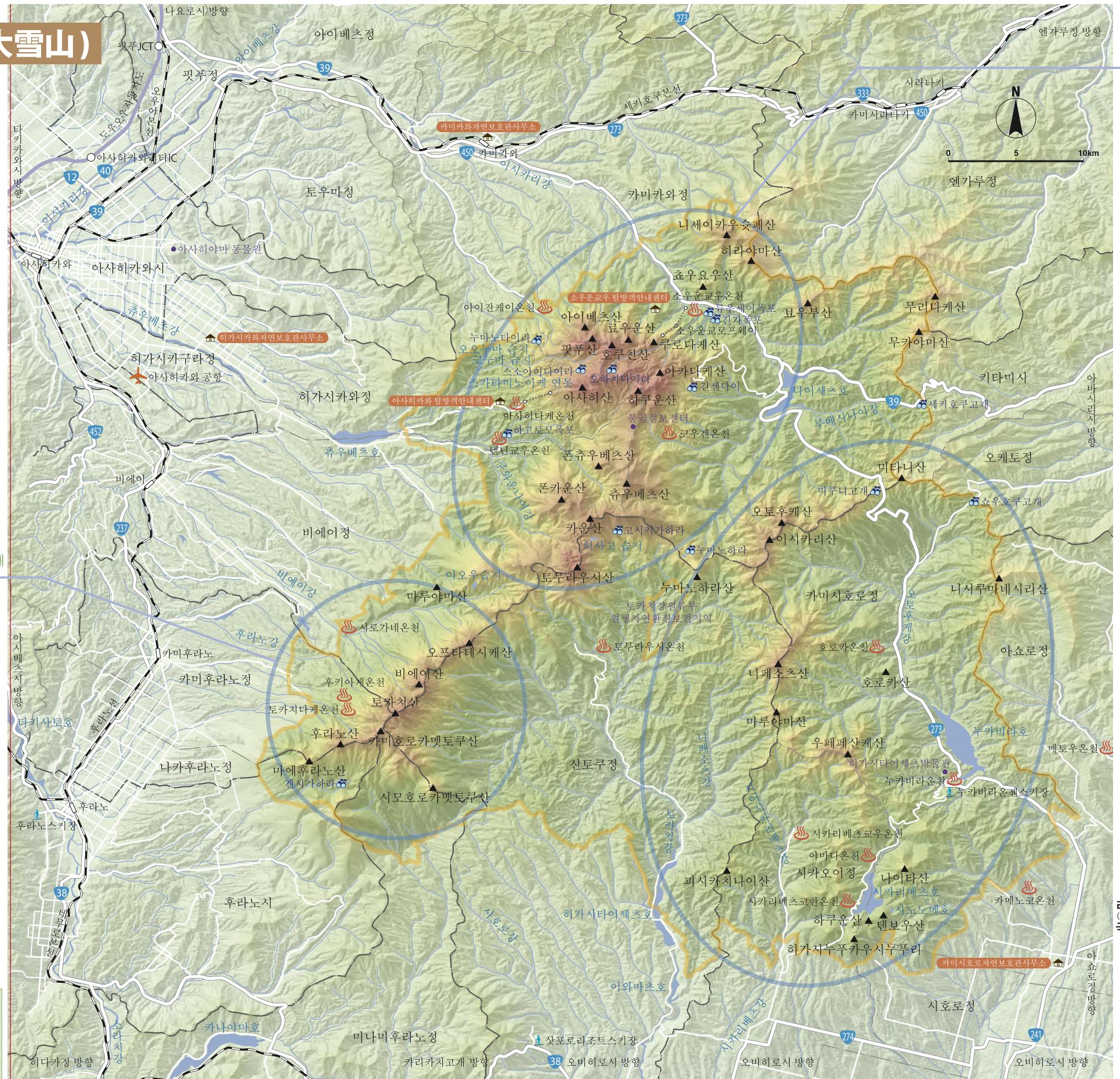
토카치(十勝)연봉 지역 산기슭에서의 원거리 조망도 웅대

외다이세츠 구역 남쪽에 동북에서 서남방향으로 이어지는 활화산 토카치산(十勝岳)이 중앙에 자리 잡은 표고 2,000m 전후의 화산지. 외다이세츠는 달리 삼각형 모양의 산들이 늘어서있는 기복있는 능선과 깊은 골짜기가 어울려져 있다. 서쪽으로 완만하게 옷자락을 당긴 듯이 산록의 비에이(美瑛), 카미후라노(上富良野) 방면에서 멀리 농경지와 수림덤이 조망되는 이어진 산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토카치산(十勝岳)의 전망

- 범례
- 국립공원
- 온천
- 탐방객안내센터·자연보호관
- 뷰포인트
- I.C.



외다이세츠(表大雪) 지역
스케일 큰 산악 협곡

이 공원의 핵심부에서 아사히산(旭岳)을 중심으로 하는 다이세츠산군과 그 남쪽으로 펼쳐진 광대한 산 위의 대지를 포함한다. 즉 다이세츠잔(大雪山)의 이름은, 아사히산 외 다수의 화산을 하나의 복합 화산이라고 보고 명명된 총칭이다. 동서의 산기슭에는 깊은 협곡이 있다. 남부에 서있는 토무라우시산은 그 산의 모습과 정원적인 아름다움에서 다이세츠잔의 산들 중에서도 큰 존재감이 있는 산이라고 할 수 있다.



토무라우시산(当麻乘越)
에서 바라본 아사히산(旭岳)

히가시다이세츠(東大雪) 지역
깊은 숲에 둘러싸여 고요한 호수

토카치강(十勝川) 유역에서 히가시다이세츠의 산들과 산속에 고요한 시카리베츠호(然別湖)와 인조호암에도 경관이 뛰어난 누카비라호(糠平湖), 수림에 둘러싸인 토카치미쓰마타(十勝三股) 등 독자적인 매력을 가지는 산 깊은 지역이다. 또한, 이시카리(石狩)연봉은 외다이세츠(表大雪) 지역과는 다른 비화산성의 산들이다. 즉 토무라우시산 동기슭에는 토카치강 원류부 원생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다.



토카치미쓰마타(十勝三股)
에서 바라본 이시카리(石狩)연봉



대지에 새겨진 지구의 역사



스가타미노이케 (姿見の池) 연못에서 바라본 아사히산 (旭岳)

충돌하는 대지와 화산

홋카이도 (北海道)의 중앙부에는 남북으로 변성암지대가 길게 형성되어 있다. 이것과 서쪽의 이시카리 (石狩)·유우바리 (夕張) 지역의 지질단면이 서쪽으로 크게 기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홋카이도는 예전에 두개의 육괴 (陸塊) 였으며, 동쪽의 북아메리카 지각대 위의 섬이 서쪽의 유라시아 지각대 위의 섬과 충돌하여 합쳐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중앙부에 남북으로 길게 늘어

선 기타미 (北見) 산지와 히다카 (日高) 산맥은 이 충돌에 의해 용기한 산맥이다.

한편, 태평양 지각대는 쿠릴열도에서 성장하여 홋카이도 중앙부를 거의 동서로 가르는 치시마호 (千島弧)를 만들어 이 선상에 활발한 화산활동대를 만들어냈다. 다이세츠잔 (大雪山)은 이 두 개 선의 교점 위에 있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높은 산군이다.

활발한 화산활동

이 국립공원은 이시카리(石狩)연봉 이외는 비교적 새로운 시대의 화산활동에 의해 태어났다. 활동중의 화산은 아사히산(旭岳), 토카치산(十勝岳)과 히가시다이세츠마루야마(東大雪丸山)화산 3개이며, 특히 토카치산(十勝岳)은 화산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시카리베즈(然別)화산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으며, 토카치미즈마타(十勝三股)의 분지 지형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곳에서 흘러내린 화쇄류 퇴적물이 확인되면서 칼테라인 것이 증명되었다.

토카치산(十勝岳)의 활동

토카치산(2,077m)은 최근에도 가끔 분화를 반복하고 있는 활동적인 화산이다.

이 산은 약 100만년 전부터 분화 활동이 있었던 것이 산기슭에 넓게 분포하는 화쇄류 퇴적물의 연구에 의해 알려져 있다. 근세의 활동은 약 3,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기록에 남아 있는 활동은

19세기 이후부터이다. 20세기 이후에는 1926년, 1962년, 1988~89년 3회의 기록이 있다. 1962년의 분화는 규모가 크고, 연기가 고도 1만 2천m에 이르러, 당시 화구 내에서 조업하고 있던 유황광산의 종업원 5명이 사망한 참혹한 기록이 있다. 1988년의 분화는 소규모로 산기슭의 피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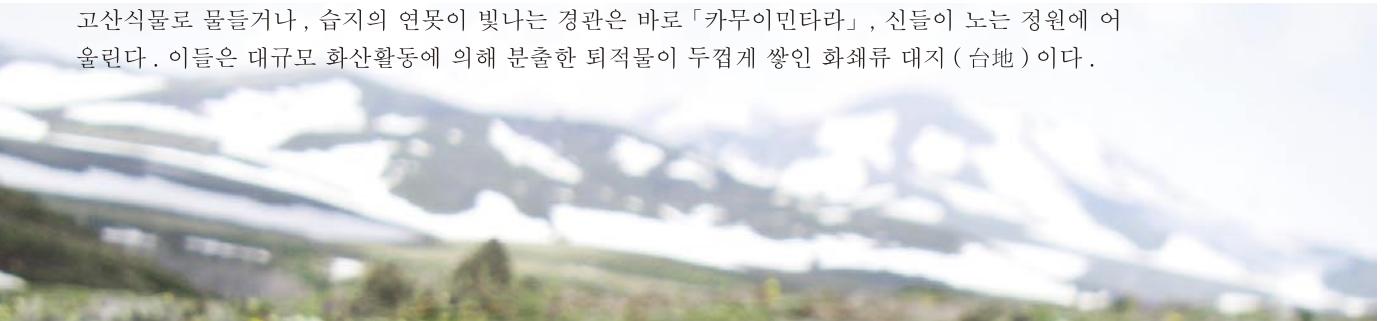
다이세츠잔 (大雪山)에서 보는 북극권

한랭한 기후조건에 있는 다이세츠잔의 고산대에는 북극권에서 보이는 현상이 있다. 영구동토란 토양과 암석이 지하 깊숙이까지 얼증 동결되는 것이다. 다이세츠잔에서는 표고 2,000m 이상의 고지에 영구동토가 있다. 또, 나카네가하라 (高根ヶ原)에는 동결에 의해서 이탄이 섬모양으로 쌓인 지형 (파르사)이 있는 것 외에, 흙이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는 동안에 입자의 크기에 따라 그물 모양이나 선형 등으로 정렬되는 구조로 현상도 볼 수 있다.

토카치산 (十勝岳) 분화구에서 바라본 아사히산 (旭岳)

천상 낙원의 동식물

다이세츠잔의 중부에는 다카네가하라 (高根ヶ原), 고시키가하라 (五色ヶ原), 누마노하라 (沼ノ原), 코가네가하라 (黄金ヶ原) 등 표고 1,400~1,800m 정도의 고도에 펼쳐진 대지 형태의 지형이 있다. 고산식물로 물들거나, 습지의 연못이 빛나는 경관은 바로 「카무이민타라」, 신들이 노는 정원에 어울린다. 이들은 대규모 화산활동에 의해 분출한 퇴적물이 두껍게 쌓인 화쇄류 대지 (台地)이다.



아카다케산 (赤岳)의 식물군락



쥐토끼



황모시나비



표범나비의 일종

고산에 사는 특이한 동물

다이세츠잔 (大雪山)의 고산대에는 일본에서 이곳이나, 극히 한정된 지역에서 밖에 볼 수 없는 동물이 서식한다. 쥐토끼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다이세츠잔계, 히다카 (日高) 산맥, 기타미 (北見) 산지와 유우바리 (夕張) 산계의 한랭한 바위 많은 환경에서 서식한다. 또, 황모시나비, 아사히효우몬 (표범나비의 일종) 등도 일본에서는 다이세츠잔에서만 서식한다. 이것들은 같은 종이나 매우 가까운 근친종이 아시아 북부나 알래스카 등 북극권의 주변에서 서식한다. 촉카이도 (北海道) 가 한랭했던 시대에는 지금보다 넓은 범위에 서식하고 있던 것이 빙하기가 끝난 후 온난화에 의해서 고산 등 한랭한 지역에만 남은 유존종 (遺存種) 으로 불리는 동물들이다.



고산대의 새

다이세츠잔 (大雪山)의 고산대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새는 솔양진이이다. 솔양진이는 아한대 침엽수림에 서식하는 새이다. 일본에서는 불규칙한 겨울철새로, 주로 촉카이도 (北海道)에 도래한다. 그러나, 다이세츠잔, 히다카 (日高) 산계, 라우스다케 (羅臼岳), 리시리산 (利尻山) 등 촉카이도 고산의 눈잣나무대에서는 여름철에도 관찰됨에 따라 다이세츠잔에서는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외, 진홍가슴, 잣까마귀, 흥동새 등이 고산대에서 볼 수 있다.

광대한 고산대가 있는 다이세츠잔 (大雪山)에는 지형과 기상조건에 따라 다양한 고산식물 군락이 발달 해 있다. 다이세츠잔의 고산대는 표고 약 1,700~1,800m 이상에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생육하는 식물은 250 종 이상이 알려져 있으며, 눈잣나무와 고산식물군락이 어우러져 다양한 색채의 경관을 만들고 있다. 식물군락은 환경 별로 몇 개의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암력지의 성주풀과 구름털제비꽃, 시로사마니요모기 (국화과) 등. 키큰나무가 생육할 수 없는 풍총지의 치시마트가자크라 (진달래과), 이와하게 (진달래과), 미네즈



1 치시마츠가자크라 (*Bryanthus gmelinii*, 진달래과 식물)
2 호소바우룻프소우 (*Lagotis minor* var. *yesoensis*, 현삼과 식물)
3 성주풀
4 시로사마니요모기 (*Artemisia arctica*, 국화과 식물)
5 가솔송

대수해(大樹海) 와 동물들



미쿠니고개 (三国峠)에서 본 토카치미츠마타 (十勝三股)의 대수해 (大樹海)

산시슭에 넓게 펼쳐져 있는 대수해(大樹海)

미쿠니고개 (三国峠)로부터 토카치미츠마타 (十勝三股) 방면의 대전망. 최근 칼데라인 것이 밝혀진 미츠마타 (三股) 분지에 침엽 - 활엽혼효림의 대수해 (大樹海)가 펼쳐져 있다. 이 국립공원에서도 가장 깊숙한 지역이다. 광대한 다이세츠잔 (大雪山)의 삼림에는 불곰, 에조사슴, 북방여우, 에조리스, 담류, 북방죽제비 등의 포유류, 시마후쿠로우 (올빼미류), 까막딱다구리 등 많은 조류가 살고 있다. 다이세츠잔 지역에서 몇번의 목격이 있었던 환상의 세가락딱다구리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북방올빼미도 번식이 확인된 것은 히가시다이세츠 (東大雪) 지역 뿐이다.



북방여우



불곰

불곰은 다이세츠잔 (大雪山) 국립공원의 전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종주로 등에서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한다. 인간과의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서, p14에 기록한 것처럼 코우겐 (高原) 온천지구의 불곰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에조사슴

에조사슴은 홋카이도 (北海道)의 거의 전역에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이세츠잔 (大雪山) 지역에서는 도로에서도 모습을 볼 기회가 많다. 증가한 에조사슴은 수목이나 고산식생, 혹은 농작물에 식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 외에,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식해에 의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주의환기를 시키는 등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또, 홋카이도는 개체수 관리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



에조사슴



칼럼

대륙에 가까운 홋카이도 (北海道)의 동물상

일본 내에서도 홋카이도와 혼슈 (本州) 이남과는 서식하는 동물의 종류가 꽤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포유류에서 반달가슴곰, 일본원숭이, 영양, 멧돼지 등은 홋카이도에서는 서식하지 않고, 반대로 불곰, 견은 단비, 시마리스 (다람쥐과) 등은 혼슈 이남에서는 서식하지 않는다.

이것은 홋카이도와 혼슈가 빙하기 이후 해수면 상승에 의해, 짧은 기간에 분리되면서 육생동물이 왕래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할린과 연해주는 혼슈 보다는 늦게까지 육지가 연속되어 있어 이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방들과는 공통성이 강하다. 하지만, 연해주나 사할린에는 분포하고 있어도 홋카이도에는 서식하지 않는 동물도 있고, 홋카이도에서 큐슈까지 일본 전역에 분포하는 일본 고유의 종류도 있다.

원시림의 기둥



주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고 있다.

예전에 시마후쿠로우는 홋카이도전역에 서식하며 개체수도 많았다. 취락 근처에서 살아 아이누 사람들은 이 새를 「코탄코로카무이 (마을의 수호신)」라고 부르며, 인간의 경호를 위해서 천상에서 파견되어 마귀를 쫓아버리고 코탄 (마을)을 지켜 주는 최고의 신으로 여겼다. 그러나, 최근에 서식할 수 있는 큰 나무들이 벌채되고, 많은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제방이 생기며, 연어나 송어가 올라올 수

없게 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금은 홋카이도동부를 중심으로 120 마리 정도가 살아남아 있다. 환경성에서는 이 새의 멸종을 막기 위하여 새집 설치 등의 보호증식사업을 하고 있다. 다이세츠잔 (大雪山) 국립공원에서는 동부지역에 극히 소수가 서식하고 있다.



새집의 설치



시마후쿠로우 (올빼미류)

시마후쿠로우는 극동 아시아의 극히 좁은 지역에 분포하는 세계 최대급의 올빼미로 체장이 70 cm 정도로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北海道)에서만 서식 한다. 하천변을 서식영역으로 하며,

토우야마루 (洞爺丸) 태풍

1954년 9월에 홋카이도 (北海道)를 덮친 태풍 15호는 세이칸 (아오모리 - 하코다테) 연락선 토우야마루를 전복시켜, 다수의 희생자를 낸 다음부터 「토우야마루 태풍」이라고 불린다. 이 태풍은 홋카이도의 삼림에 전무후무한 풍해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가 커던 것은 다이세츠잔 (大雪山) 지역이었다.

지금, 반세기전의 피해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임상이 완전히 변했다고 알려질만큼 대량의 나무가 바람에 쓰러졌다. 이러한 대재해는 몇 백년을 주기로 일어나는 삼림순환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르지만, 어두운 숲을 만들고 있던 거목의 소실은 삼림내건조를 가져와 동물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이 만들어낸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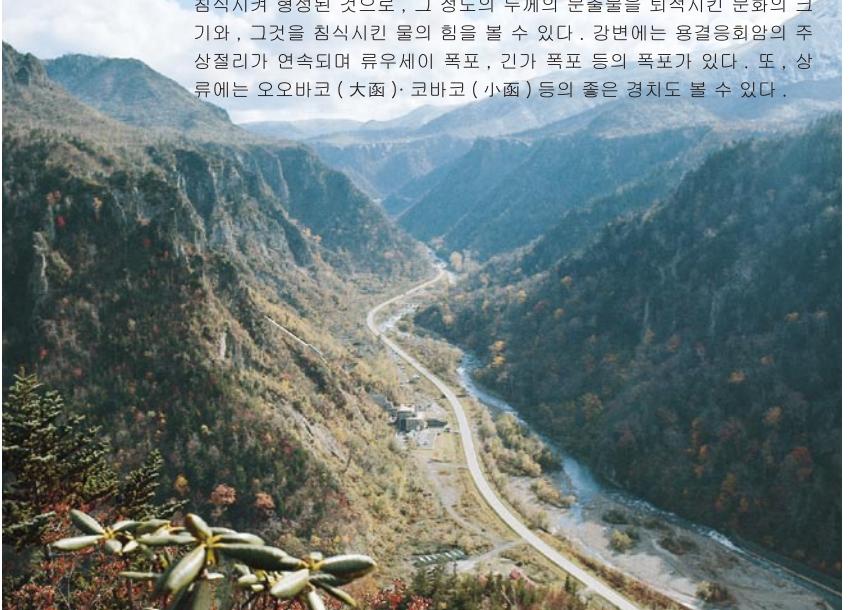
이 공원의 산기슭에는 소우운쿄우 (層雲峽), 텐닌쿄우 (天人峽) 등의 계곡과 시카리베츠호 (然別湖) 등 물이 주역이 되는 경승지가 많다.



주상절리

소우운쿄우 (層雲峽) 나 텐닌쿄우 (天人峽)의 양쪽 암벽은 바위에 규칙적인 균열이 생겨 다각형의 기둥이 연속해 서있는 듯이 보인다. 이 현상을 주상 절리라고 한다. 소우운쿄우나 텐닌쿄우를 만드는 암석은 용결동회암으로 분화 시에 분출한 화쇄류에 포함되어 있던 화산재나 경석 등의 물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화쇄류에 의해 지표에 분출물이 두껍게 쌓이면, 그 열로 물질이 녹아 그 중량에 의해서 압축되어 밀도가 높은 암석이 생성된다. 이것이 용결동회암이다. 지표의 암석이 차가워지면, 수축하기 때문에 바위에 균열이 생겨 그것이 땅까지 이어져 이러한 주상절리가 생긴다.

소우운쿄우 (層雲峽)



이시카리강 (石狩川)이 다이세츠잔 (大雪山)의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곳에 있는 깊은 협곡이다. 다이세츠화산의 화쇄류가 퇴적한 대지를 강이 침식시켜 형성된 것으로, 그 정도의 두께의 분출물을 퇴적시킨 분화의 크기와, 그것을 침식시킨 물의 힘을 볼 수 있다. 강변에는 용결동회암의 주상절리가 연속되며 류우세이 폭포, 긴가 폭포 등의 폭포가 있다. 또, 상류에는 오오바코 (大函)·코바코 (小函) 등의 좋은 경치도 볼 수 있다.

시카리베츠호 (然別湖)

이 국립공원에서 유일한 대규모의 자연호수로 수면표고 약 800m, 면적 약 3.5km²의 빙영양 호이다. 호수의 생성은 1만년 이상 전에 활동하고 있던 화산이 강을 막아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설과 칼데라호라고 하는 설이 있다. 수면은 12월 중순부터 거의 반년을 걸친다. 주변이 삼림으로 둘러싸인 환경으로 남해안에는 하쿠운산 (白雲山)과 텐보우잔산 (天望山)이 있다. 즉 시카리베츠호의 동쪽에는 작은 시노노메호 (東雲湖)가 있고, 시카리베츠호 남쪽 호안을 지나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남쪽의 히가시누프카우시누프리 주변의 바위가 않고, 바람구멍이 있는 지대에는 표고는 낮지만 쥐토끼가 서식하고 있다. 바람구멍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이 일대를 고산지대와 같은 한랭한 기상 조건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텐닌쿄우 (天人峽)

다이세츠잔 (大雪山)의 서쪽기슭에 있으며, 이시카리강 (石狩川)의 지류와 츄우베츠강 (忠別川)이 만든 협곡이다. 암질도 생성도 소우운쿄우 (層雲峽)와 같으며, 다이세츠화산의 화쇄류에 의한 용결동회암으로 주상절리가 이어져 낙차 270m의 하고로모 (羽衣) 폭포와 폭이 넓은 시키시마 (敷島) 폭포가 있다. 이 주변의 삼림은 토우야마루 (洞爺丸台風) 태풍 (→ p11)에 의한 피해가 비교적 적어 훌륭한 임상을 유지하고 있다.



빙폭

겨울의 다이세츠잔 (大雪山)은 모든 것이 눈과 얼음으로 덮인다. 소우운쿄우 (層雲峽)의 많은 폭포도 얼어붙는 맹추위이다.

칼럼

아사히산 (旭岳)의 눈의 결정



홋카이도(北海道)대학 교수인 나카다니 우키치로(中谷宇吉郎 1900~1962)는 현미경으로 본 눈(雪)의 결정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눈 연구를 시작하여 눈결정을 분류하였다. 또, 인공 눈(人工雪)의 연구에서 결정이 형성되는 조건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밝혀냈다. 그 연구의 필드가 되었던 것이 아사히다케(旭岳)이다. 저온으로 청정한 다이세츠잔(大雪山)의 눈은 이상적인 결정구조를 눈굴 속에 틀어박혀 연구하는 나카타니(中谷)에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다이세츠잔(大雪山) 국립공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국립공원에 오면, 우선 탐방객안내센터에 들러보자. 지역의 자연과 역사의 전시, 스텝의 안내해설 등을 통해 공원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자연체험 이벤트와 프로그램도 행해지고 있다.

다이세츠잔 국립공원에서는 환경성에 의해, 소우운쿄우(層雲峠)와 아사히다케(旭岳) 온천에 탐방객안내센터, 코우겐(高原) 온천에 불곰정보센터가 정비되어 있다. 또 누카비라(糠平)에는 카미시호로초(上士幌町)의 히가시다이세츠박물관이 있다.

소우운쿄우(層雲峠) 탐방객안내센터

소우운쿄우(層雲峠) 온천에 있다. 자연관찰코스안내, 지형 디오라마 등의 전시와 하이비전 영상에 의한 다이세츠잔(大雪山)의 사계에 대한 소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계절에 따른 자연 산책이나 버드워칭, 스노슈즈트레킹, 애니멀트랙킹 등의 행사도 하고 있다.

〒 078-1701 北海道上川郡上川町層雲峠 tel. 01658-9-4400
<http://sounkyovc.town.kamikawa.hokkaido.jp/>

코우겐(高原) 온천 불곰정보센터

코우겐(高原) 온천·연못 산책 코스의 입구에 있다. 불곰과의 접촉사고방지를 위해 입산자에 대한 지도 외, 감시 패트롤을 실시하고 있다.

北海道上川郡上川町層雲峠(高原温泉)
(외부로부터의 연락 방법은 없습니다.)



불곰과의 만남

다카네가하라(高根ヶ原)의 동기슭에는 숲에 둘러싸인 작은 호수와 습지가 많아 코우겐(高原) 온천을 중심으로 돌아보는 트레킹코스는 가을 단풍철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그러나, 이 지역은 불곰의 행동권과 겹치기 때문에 인간과 불곰의 거리가 매우 가깝게 될 때가 있다.

불곰정보센터는 불곰과의 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성이 1994년에 설치한 시설이다. 이용자는 입산 전에 여기서 불곰의 출현상황이나 불곰에 관한 지식 등의 연수를 받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또, 상주하는 패트롤이 코스를 감시하고, 불곰의 출현상황이나 기후에 따라 코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이용 등산로의 관리계획

이 공원에 등산자가 많은 것은 아사히산(旭岳)에서 토무라우시산에 걸친 외다이세츠 일대, 그리고 토카치(十勝) 연봉의 남부이다.

예전에는 조용한 산이었던 곳도 최근 등산객의 증가로 등산로의 황폐화가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고산식생의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성은 보도의 노선마다 그 장소의 환경과 이용상황에 따른 등산로 관리법과 등산시의 마음가짐도 정해놓고 있다.



아사히다케(旭岳) 탐방객안내센터

아사히다케(旭岳) 온천에 있다. 디오라마 등에 의해 다이세츠잔(大雪山)의 자연을 소개하고 있다. 또, 자연 관찰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 071-0372 北海道上川郡東川町旭岳温泉 tel. 0166-97-2153
<http://www.welcome-higashikawa.jp/vc/index.htm>



히가시다이세츠(東大雪) 박물관

누카비라(糠平) 온천에 있는 카미시호로초(上士幌町)이 설립한 박물관. 다이세츠잔(大雪山) 지역의 자연에 관한 전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자연 관찰회와 자연 관찰 가이드의 양성 사업 등도 하고 있다.

〒 080-1403 北海道河東郡上士幌町糠平 tel. 01564-4-2323

다이세츠잔(大雪山)의 등산에 있어서 마음가짐

- ! 다이세츠잔을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에 노력합시다
- ! 다른 이용자에게 있는 것을 인식하여 주위에 대한 배려를 합시다
- ! 등산의 기본은 사고방지와 자기책임에 있습니다
- ! 다이세츠잔에서 숙박할 때에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생각합시다
- ! 잔설기(残雪期)·해설기(融雪期)·강우시에 등산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영향관리자 등의 지시를 준수합시다
- ! 관리자 등의 지시를 준수합시다

외다이세츠 (表大雪) 구역

이 공원의 최북부에서 아사히산 (旭岳) 주변 구역이다. 구로다케산 (黒岳) 과 아사히산 (旭岳) 의 산중턱까지 로프웨이가 연결되어 등산은 비교적 용이하다.
소우운교우 (層雲峠) 와 텐닌교우 (天人峠) 의 탐승은 p24~25 참조. 아사히카와시 (旭川市) 가 이용의 기점이 되며, 버스 또는 철도와 버스를 갈아타고 공원으로 들어간다.

구로다케산 (黒岳 1,984m)

소우운교우(層雲峠) 온천에서 로프웨이와 리프트를 갈아타고 고도 약 1,500m 까지 올라가, 남은 480m를 오르면 구로다케산(黒岳)의 정상이다. 다이세츠잔(大雪山) 중앙화구를 바라볼 수 있다. 산정상은 좁지만, 그 앞의 능선은 폭이 넓다. 주변일대는 성주풀 등 식물의 종류가 많은 곳이다. 구로다케산에서 「오하치다이라(御鉢平)」라고 불리는 화구연을 따라서 호쿠친산(北鎮岳)의 기슭을 돌아 스소아이다이라(裾合平)에서 아사히산(旭岳) 로프웨이까지 가는 것이 유명한 코스이다. 오르락 내리락은 심하지만, 화구의 반대측을 돌아 아사히산을 넘어 로프웨이까지 갈 수도 있다.



오하치다이라 (御鉢平)



쿠로다케산 고고우메(墨岳五合目)의 전망



아사히다케 (旭岳) 온천의 북쪽에 있는 아이잔카이 (愛山溪) 온천에서 오른다. 아이베초산 (愛別岳) 중턱에 펼쳐진 고요한 습지의 연못이 아름답다. 토우마놋코시 (当麻乘越) 를 넘어서 소아이다이라 (裾合平) 에 도달하는 코스가 있다.



토우마놋코시 (当麻乘越)에서 본 누마노타이라 (沼ノ平)



아이잔케이 (愛山溪)에서 누마노타이라 (沼ノ平)를 향해

긴센다이(銀泉台)에서 아카다케산(赤岳 2,078m)

아카다케산의 산기슭 긴센다이 (銀泉台) 까지는 소우운쿄우 (層雲峠) 온천에서 버스가 있다. 제일 화원, 제 2 화원을 거쳐 아카다케산 (赤岳)에 오르면, 외다이세츠 (表大雪)의 산들을 조망할 수 있다. 아카다케산으로부터 코이즈미산 (小泉岳) 까지는 산의 형태가 옛부터 형성되고 있어 두메자운과 키바나시오가마 (현삼과 식물) 등 희소식물이 많은 지구이다.



비로율달 (Pediculasis oedematosa)
현상과식물)



야카다케(赤岳) 산정상에서 본 야사히산(旭岳) 밤면

아사히산 (旭岳 2,291m) · 스소아이다이라 (裾合平)



야산회산(旭岳)과 계음펜타페탈룸(장미과 식물)



코우겐 (高原) 온천 · 연못 (沼) 둘러보기

다카네가하라 (高根ヶ原) 아래 삼림에는 작은 연못이 많이 있다. 코우겐 (高原) 온천을 출발하여 연못을 돌아보는 트레킹코스는 가을 단풍철에 특히 인기가 높다. 이 시기는 자가용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코우겐온천까지는 소우운쿄우 (層雲峠) 에서 버스가 있다. 보도입구에 있는 불곰정보센터에서 반드시 지도를 받아 출발하자. 불곰과 만날 위험이 있을 때는 보도가 폐쇄되기도 한다.



코우겐온천 (高原温泉) 의 하이킹족



산 전체를 물들이는 단풍

다이세츠잔 (大雪山) 의 단풍은 빠르게는 9월 중순을 지날 무렵에 고산대에서 시작된다. 우라시마 철쭉과 게움 펜타페탈룸 (장미과 식물) 등의 작은 식물이 불타는 빨강으로 물이 든다. 단풍은 빠르게 산위에서 아래쪽으로 물들어 가며, 삼림대에 들어가면, 마가목, 사스레나무, 에조고로쇠, 계수나무 등의 나무들이 빨강, 황금, 노란색으로 물들어 산 전체가 아름다운 비단처럼 장식된다. 눈이 모든 것을 다 덮기 직전까지는 식물들의 향연이다. 코우겐 (高原) 온천 주변의 단풍은 특히 선명하다.



다이세츠 (大雪) 에 찾아온 가을

토무라우시산 주변

다이세츠 (大雪) 화산의 중앙 화구에서 남쪽, 다카네가하라 (高根ヶ原)로부터 토무라우시산에 걸친 구역은 이 공원에서도 가장 「카무이민타라」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곳이다. 광대한 대지,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 고산식물군락, 여기 저기 보이는 주방하지형 등, 천상적인 세계가 전개된다.

이 지구는 당일치기 등산이 곤란하고, 피난산장을 이용하든지 텐트를 지참할 수 밖에 없다. 토카치 (十勝) 연봉 등을 포함한 다이세츠잔 지역에는 일본 알프스에 있는 것과 같은 설비가 갖추어진 오두막은 없다. 구로다케산 (黒岳) 석실 (石室)과 하쿠운산 (白雲岳) 산장은 여름철에만 관리인이 있고, 그 외 츄우베츠산 (忠別岳), 히사고누마 등의 산장은 모두 무인이다. 또, 캠프는 지정지 이외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등산에 대해서는 각지의 탐방객안내센터 등에 문의하고, 최신의 정보를 얻은 후 신중한 계획을 세우면 좋다. 주된 루트는 눈내리지 않는 시기라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코스는 아니지만, 장거리이므로 상급자용이다.



누마노하라에서 토무라우시산으로



토무라우시산의 종주로

칼럼

홋카이도 (北海道) 의 빙하 흔적



폰카운산의 고산식물군락

홋카이도의 빙하지형으로서는 다이세츠잔 (大雪山) 계의 남쪽에 있는 히다카 (日高) 산맥의 카르 (소규모의 빙하가 만든 반원형의 얕은 골짜기) 가 잘 알려져 있다. 히다카 산맥보다 표고가 높은 다이세츠잔에도 각처에 카르형태의 지형이 있어 빙하퇴적과 같은 퇴적물은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카르일지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 그것은, 현재의 산의 형태를 만든 다이세츠잔의 화산활동이 빙하가 발달한 최종 빙기보다 후의 보다 온난한 시기까지 계속되고 있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폭발화구가 카르를 깊은 지형이 되는 경우도 논란이 되는 하나의 이유이다.

이용 안내 2

토카치산 (十勝岳) 지역

Tokachidake

토카치 (十勝) 연봉은 다이세초 (大雪) 화산군의 남쪽으로 늘어서 있는 산들로 중심이 되는 토카치산은 지금도 활동하는 활화산이다. 방문객이 많은 것은 남부의 토카치산, 비에이산 (美瑛岳), 후라노산 (富良野岳) 등이다.

즉, 이 지구의 서쪽 카미카와 (上川) 지방은 앞에 높은 산이 없어, 연봉을 멀리 바라 볼 수 있지만, 동쪽 토카치 지방은 촛카이도 (北海道)에서도 유수의 깊은 산이 있는 지역이므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루트는 대부분이 서쪽의 비에이 (美瑛), 후라노 (富良野)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토카치산 (十勝岳) 지역도



비에이산 (美瑛岳) 과 비에이후지 (美瑛富士)



계음 펜타페탈룸 (장미과 식물)

토카치산 (十勝岳) · 전망대



산단야마 (三段山)에서 토카치산 (十勝岳) 까지

전망대에는 시로가네(白金) 온천에서부터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정면에 연기를 뿜어올리는 토카치산(十勝岳)을 바라보는 전망 지점에서 일대의 사력지(자갈밭)에는 바위주머니 등이 많다. 여기에서 후키아게(吹上)온천을 거쳐 토카치다케 온천까지 숲 속을 걷는 탐방로가 있다. 토카치산으로의 등산로는 암벽지를 걷는다. 산정 가까운 곳에는 타이쇼(大正)화구, 그랜드화구, 62화구 등 많은 화구가 있다. 산정은 좁은 용암동이므로 시야를 차단하는 일은 없다. 등산에 있어서는 등산로 입구에서 화산정보를 확인하자. 산단야마(三段山), 마에토카치산(前十勝岳) 주변의 슬로프는 동계는 매우 적합한 산스키의 필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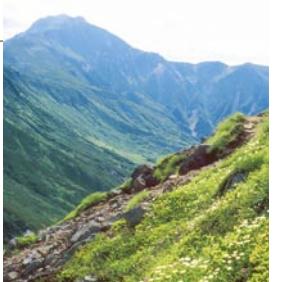
바위주머니 (현삼과 식물)

후라노산 (富良野岳) 1,912m



후라노산 (富良野岳)

토카치(十勝) 연봉의 남부에 있는 후라노산(富良野岳)은 일찌기 활동이 끝난 화산이다. 그 때문에 고산식물이 풍부하다. 등산에는 토카치다케(十勝岳) 온천이 기지가 된다. 산정에서 내려다 보는 겐시가하라(原始ヶ原)는 매력적이다. 또한, 거리가 길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코스는 아니지만, 후라노(富良野)에서 누노베강(布部川)을 따라 오르는 코스도 있다.



고산식물군락에 바라본 후라노산 (富良野岳)

겐시가하라 (原始ヶ原)



겐시가하라 (原始ヶ原)

후라노산(富良野岳)의 히가시야마(東山) 산허리에 있는 습지. 침엽수림과 습원이 만나는 광대한 지역으로 북방적인 경관이 뛰어나다. 후라노(富良野)에서 닌구류의 숲을 경유하는 후라노산의 등산코스 도중에 있으며, 누노베강(布部川) 연선코스와 임간코스 2개의 루트가 있다. 강가 코스의 도중에는 폭포가 많다. 코스 중간에는 와이어나 로프에 의지하는 장소도 있으므로 다리를 옮기기 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습지에는 목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습지의 황폐를 막기 위해서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보도 이외에는 들어가선 안 된다.



이용 안내 3

히가시다이세츠 (東大雪) 지역

시카리베츠호 (然別湖) 와 누카비라 (糠平) 호를 중심으로 니페소초산, 우페페산케산, 이시카리산 (石狩岳) 등은 산악에 둘러싸인 지구이다. 소우운쿄우 (層雲峽)로부터의 국도 273 호선 (누카비라 국도) 에서 미쿠니고개 (三国峠) 를 넘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JR 네무로 (根室) 본선의 오비히로 (帶広) 나 신토큐 (新得) 에서 들어가게 된다.



안개낀 호수를 돌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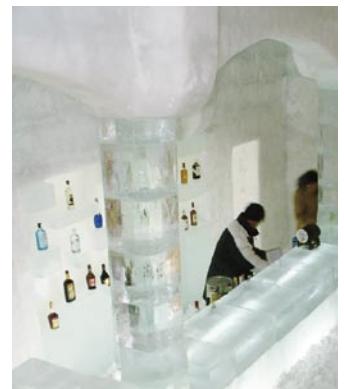


초여름의 타우슈베츠교

시카리베츠 호 (然別湖)

이 지역 최고의 경승지이다. 삼림에 둘러싸인 자연성 높은 호수 경관을, 호수 주변 탐승 뿐 아니라, 카누와 유람선을 타고 호수 위에서 탐승 할 수도 있다. 또, 겨울철에는 다양한 빙상 이벤트를 한다. 공원 입구의 오우기하라 (扇ヶ原) 는 토카치 (十勝) 평야와 히다카 (日高) 연봉을 일망할 수 있는 전망 지점으로서 알려져 있다. 또, 시노노메호 (東雲湖) 의 가이드투어와 얼어붙은 호수위에 있는 크로스컨트리 스키투어나 스노슈즈에 의한 투어를 하고 있다.

또, 시카리베츠호의 서쪽, 시이시카리 베츠강에는 시카리베츠쿄우 (然別峠) 가 있어, 병풍바위, 동굴문 폭포 등의 경승이 있고, 삼림옥 코스도 설치되어 있다. 강가에는 사슴의 탕 등 다수의 온천이 용출하고 있다.



얼음 이벤트 (시카리베츠코코탄)

누카비라호 (糠平湖)

누카비라호는 1956년에 완성한 발전용 댐에 의한 인공 호수이다. 히가시다이세츠 (東大雪) 의 산들 뒤로한 호수의 풍경이 경승지로서 평가되고 있다. 누카비라 (糠平) 일대에서는 카누 체험이나 쥐토끼 관찰회 등의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구) 국철 시호로센 (士幌線) 의 콘크리트 아치교가 지금도 다수 남아 훗카이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호수 서쪽 호안의 선로자취는 훗카이도 자연보도로 정비되어 있다.



얼음 위의 스노우슈즈

칼럼

칼럼 시카리베츠호 (然別湖) 의 미야베이와나



미야베이와나 (연어과 물고기)

훗카이도 (北海道) 의 하천에는 이와나 (연어과) 와 닮았지만, 몸의 측면에 얼룩무늬가 다른 곤돌매기가 살고 있다. 주로 다이세츠잔 (大雪山) 이나 히다카 (日高) 산맥, 시레토고 (知床) 반도 등 산지의 계류에 살며, 시레토고반도 등에 사는 것은 바다로 내려가 성장한다. 그러나, 시카리베츠호에 살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산란하는 곤돌매기는 아가미의 구조 등에서 시카리베츠호 고유의 아종으로 인정받아 미야베이와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



히가시다이세츠 (東大雪) 의 해돋이

히가시다이세츠 (東大雪) 의 산들

외다이세츠 (表大雪) 의 웅대한 이미지와 크게 다르며, 이시카리 (石狩) 연봉, 니페소초산, 우페페산케산 등 험난한 산악이 우뚝 솟아있고, 그 주위에는 광대한 수해 (樹海) 가 펼쳐져 깊이 있는 자연을 체감 할 수 있다.

시카리베츠호 (然別湖) 의 외륜산을 이루는 동서의 누프카우시누프리, 하쿠운산 (白雲山) 과 덴보우잔산 (展望山) 등에서는 토카치 (十勝) 평야와 히다카 (日高) 산맥의 전망이 뛰어나다. 일부에는 표고가 낮으면서, 영구동토가 존재하여 많은 고산식물이 자라고, 쥐토끼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에조쯔쓰지 (*Therorhodion camtschaticum* 진달래과 식물)

 미네즈모우 (*Loiseleuria procumbens* 진달래과 식물)


구 미즈마타역사 (三俣駅舎)

지금, 아무도 없는 주거지에서 피어난 르피나스는 지난 날의 자취이다. 그리고, 양호한 삼림환경과 주변 산악경관은 자연학습의 좋은 필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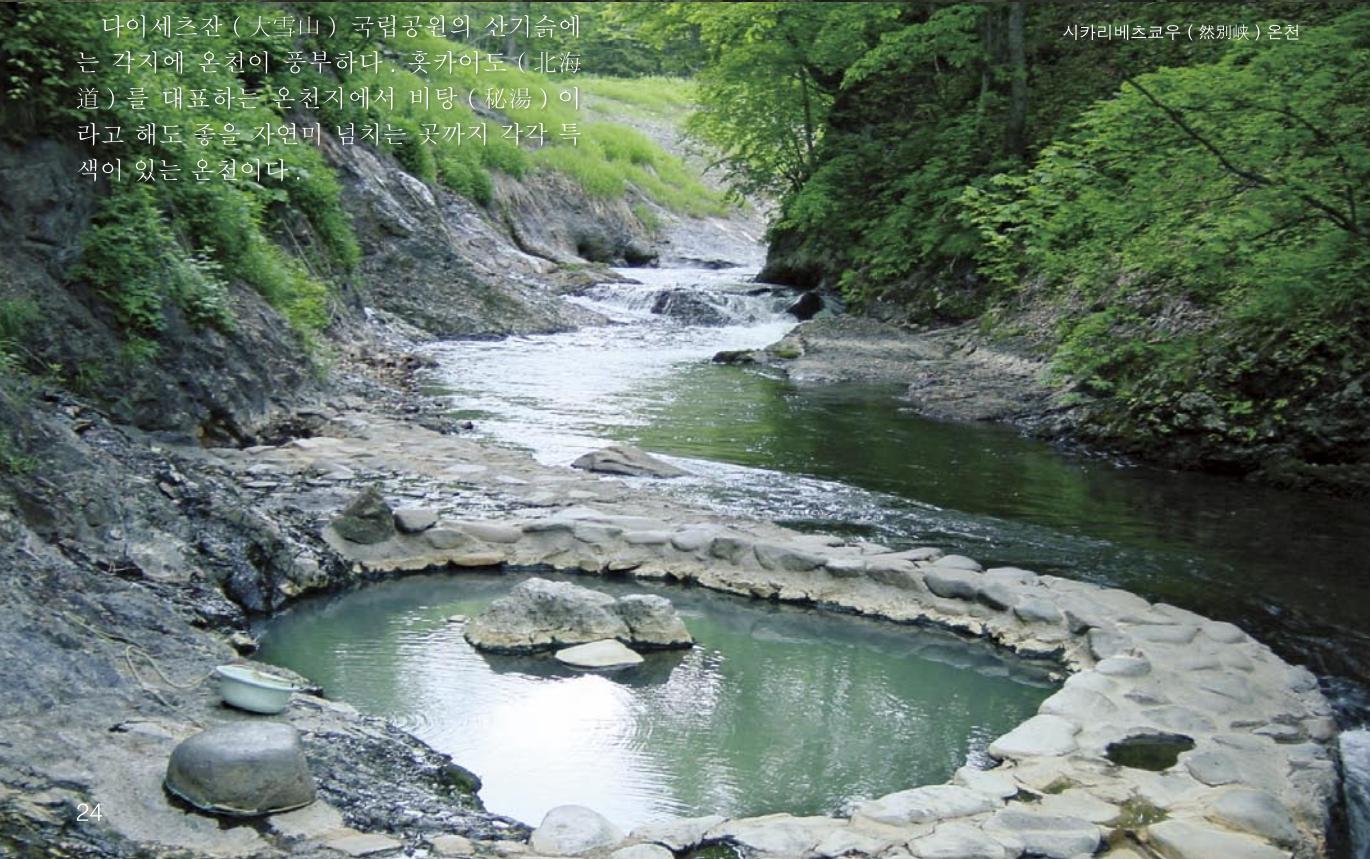
환상의 새로서 알려져 일본 내에서는 다이세츠잔 (大雪山) 주변에서, 단 9 번의 관찰 기록만이 남아있는 세가락딱다구리가 일본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은 1942년, 번식하는 것이 확인된 것은 1956년 단 한번으로 바로 이 곳이었다.



주거유적지에 핀 루피너스

온천의 즐거움

다이세츠잔(大雪山) 국립공원의 산기슭에는 각지에 온천이 풍부하다. 훗카이도(北海道)를 대표하는 온천지에서 비탕(秘湯)이라고 해도 좋을 자연미 넘치는 곳까지 각각 특색이 있는 온천이다.



주된 온천과 볼 만한 곳 안내



아사히다케 (旭岳) 온천



누카비라 (糠平) 온천거리

외다이세츠(表大雪) 지구

소우운쿄우(層雲峽) 온천

도내 최대의 온천지이며, 온천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온천의 종류는 유황 온천이다. 아사히카와(旭川)에서 아바시리(網走)·토카치(十勝)방면을 연결하는 국도에 있어 훗카이도(北海道)관광의 주요한 경유지로 또한, 소우운쿄우의 탐승이나 다이세츠잔(大雪山) 등산의 기지로서 성황을 이룬다. 부근에는 류우세이·긴가 폭포나 오오바코(大函) 등이 있어, 계곡미를 즐길 수 있다.



소우운쿄우 (層雲峽) 온천거리

텐닌쿄우(天人峽) 온천

1900년 문을 연 훗카이도 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온천이다. 유산염 온천으로 텐닌쿄우탐승의 기지가 되고 있다. 차도 종점에서 강연선에 보도가 있어 하고로 모노(羽衣) 폭포를 방문할 수 있다.

아사히다케(旭岳) 온천

아사히산(旭岳)의 산기슭, 표고 약 1,050m에 있다. 1914년에 발견된 염화 온천. 소우운쿄우(層雲峽)온천과 함께 다이세츠잔(大雪山)등산의 기지가 되고 있다. 예전 지명인 유코만베츠(勇駒別)는 아이누어로 「탕을 향해 흐르는 강」의 뜻으로 유코만베츠강(勇駒別川) 부근에는 지금도 온천의 용출을 볼 수 있다.



후키야게 (吹上) 온천

토카치(十勝)연봉 지구

시로가네(白金) 온천

1950년에 개발한 유산염 온천. 토카치산(十勝岳)에서 가장 가깝다. 온천입구에 연장 3km의 자작나무 산책길이 있다.

토카치다케(十勝岳) 온천 · 후 키야게(吹上) 온천

국민보양온천지로 지정되어 있는 온천이다. 토카치산(十勝岳) 산기슭의 표고 약 1,200m, 눈잣나무대에 가까운 높은 곳에 있으며, 온천은 산성 온천이다. 후키야게(吹上)온천은 토카치다케온천의 약간 아래방향 전망대와의 중간 지점에 있다.



누푼토무라우시온천

히가시다이세츠(東大雪)지구

누카비라(糠平) 온천

히가시다이세츠지구 최대의 이용 거점으로 여관 등의 시설이 많다. 단순온천. 지구 내에 히가시다이세츠박물관, 스키장, 작은 마을 산책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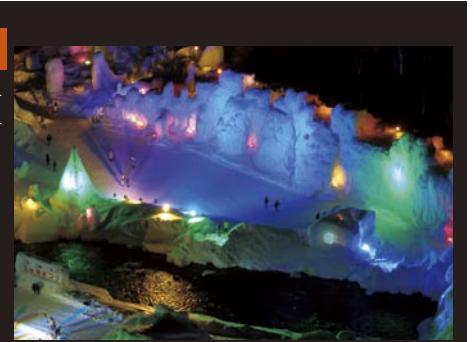
대자연에 둘러싸인 온천

이 공원에는 그 밖에도 외다이세츠(表大雪)지구에 아이잔케이(愛山溪)온천, 코우겐(高原) 온천, 히가시다이세츠(東大雪)지구에는 시카리베츠호(然別湖)온천, 시카리베츠쿄우(然別峠) 온천(국민보양온천지 지정), 토무라우시온천, 호로카온천, 야마다온천 등이 있다. 모두 숲에 둘러싸인 조용한 온천으로 대부분이 소박한 산의 온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축제 · 이벤트

소우운쿄우 (層雲峽) 빙폭축제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우뚝 솟은 얼음 조형물이 불을 밝혀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진다.





국립공원 프로필

국토의 70%가 삼림으로 덮여 아한대에서 아열대까지 다양한 환경과 동식물로 둘러싸인 일본 열도. 풍부하고 아름다운 일본의 자연을 대표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이다.

일본의 국립공원은 1931년 제도를 창설하여, 70년 남짓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류큐열도(琉球列島)까지 29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어 국토 면적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을 커버하는 국립공원은 자연환경과 생물다

양성을 보전하는 일본의 보호지역 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국립공원에는 원시적인 삼림과 습지 뿐 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농경지와 취락주변의 자연,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경관도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휴양 활동이나 관광, 교육활동 등에 이용하는 것도 목적의 하나로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중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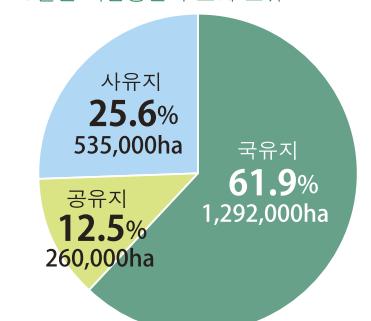
일본의 국립공원은 토지소유에 관

일본의 국립공원

- 1 리시리레분사로베츠
- 2 시레토코
- 3 아칸
- 4 쿠시로시초겐
- 5 다이세츠산
- 6 시코츠토우야
- 7 토와다하치만타이
- 8 리쿠추우카이간
- 9 반다이아사히
- 10 닛코
- 11 오제
- 12 죠우신에초코우겐
- 13 치치부타마카이
- 14 오가사와라
- 15 후지하코네이즈
- 16 추우부산가쿠
- 17 하쿠산
- 18 미나미알프스
- 19 이세지마
- 20 요시노쿠마노



● 일본 국립공원의 토지 소유



홋카이도의 국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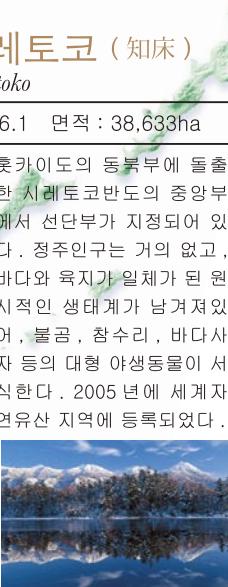
3 아칸 (阿寒) Akan



지정년 : 1934.12.4 면적 : 90,481ha

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국립공원의 하나.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원시림과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크고 작은 호수가 경관의 기조가 되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 다운 자연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공원이다. 아직 활동 중의 화산도 있어 각처에서 온천이 용출한다.

2 시레토코 (知床) Shiretoko



지정년 : 1964.6.1 면적 : 38,633ha

홋카이도의 동북부에 돌출한 시레토코반도의 중앙부에서 선단부가 지정되어 있다. 정주인구는 거의 없고, 바다와 육지가 일체가 된 원시적인 생태계가 남겨져 있어, 불곰, 참수리, 바다사자 등의 대형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2005년에 세계자연유산 지역에 등록되었다.



1 리시리레분사로베츠 (利尻礼文サロベツ) Rishiri-Rebun-Sarobetsu

지정년 : 1974.9.20 면적 : 24,166ha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국립공원. 해상의 고립봉우리 리시리섬(利尻島), 고유의 식물을 볼 수 있는 레분섬(礼文島), 그리고 사로베츠강의 하구에 펼쳐진 광대한 사로베츠 습지의 3개 지역으로 이루어지며, 변화가 풍부한 경관과 동식물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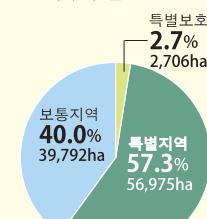
6 시코츠토야 (支笏洞爺) Shikotsu-Toya

지정년 : 1949.5.16 면적 : 99,473ha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는 화산과 칼데라호의 경관을 기준으로 하는 공원으로 자연성 높은 삼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삿포로(札幌) 대도시권에 근접하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친근한 휴양의 장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 탐방객수 : 1,462 만명 (2005년)

● 지구구분



● 토지 소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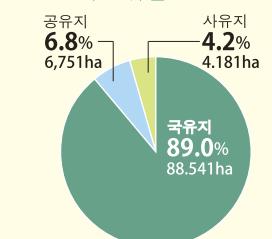


사진 : 아베 고우, 오오토 모 키요시, 오오하시 히로카즈 (Naturally), 오오하시 토시하루, 쿠보 노리치카, 코이케 마사카즈, 사사키 유히코, 사노 카촌이치, 타케자코 츠구미초, 타치바나 토모유키, 츠바타 타카유카, 하마다시리 코우이치, 하쿠다케 다카시, 호리카와 케이코, 모리모토 나츠히코, 암마다 료우조우, 요시에 카즈유키, 시코츠후(支笏湖) 팬클럽, 시코츠후 온천조합, (재) 자연공원재단, (사) 죠우잔케이 관광협회, (사) 토우야 온천 관광협회, 니세코정, (사) 노보리베츠(登別) 관광협회, (주) 홋카이도 아트사, 홋카이도 영상기록(주)

지정년 : 1987.7.31 면적 : 26,861ha

1987에 지정된 비교적 새로운 국립공원. 쿠시로습지는 쿠시로강의 유역에 넓게 자라는 사초류 등의 저층 습지를 주제로 한 일본 최대의 습지로 탄두리미 이토우 (*Huco perryi*) 등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귀중한 서식지이기도 하다. 1980년에 일본에서 최초로 람사조약(국제습지조약)의 등록 습지가 되었다.



4 쿠시로습지 (釧路湿原) Kushiro-Shitsugen

지정년 : 1934.12.4 면적 : 226,764ha

22만 6천 ha의 일본 최대 국립공원. 홋카이도(北海道)의 지붕이 되고 있는 2000m급 산맥이 늘어서 있고, 산상에는 고산식물의 대군락이 펼쳐져 있는 원시성 높은 공원이다. 불곰을 시작으로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5 다이세츠잔산 (大雪山) Daisetsuzan

지정년 : 1934.12.4 면적 : 226,764ha

22만 6천 ha의 일본 최대 국립공원. 홋카이도(北海道)의 지붕이 되고 있는 2000m급 산맥이 늘어서 있고, 산상에는 고산식물의 대군락이 펼쳐져 있는 원시성 높은 공원이다. 불곰을 시작으로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